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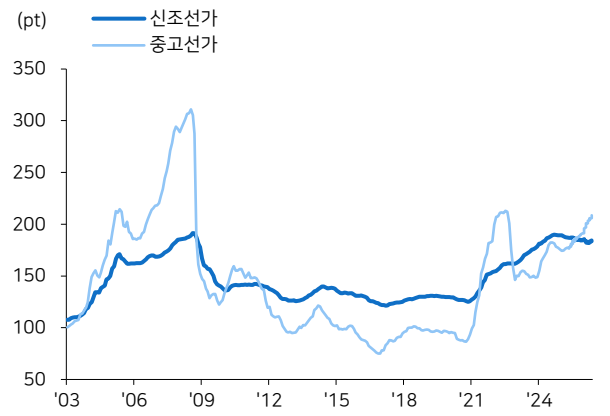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15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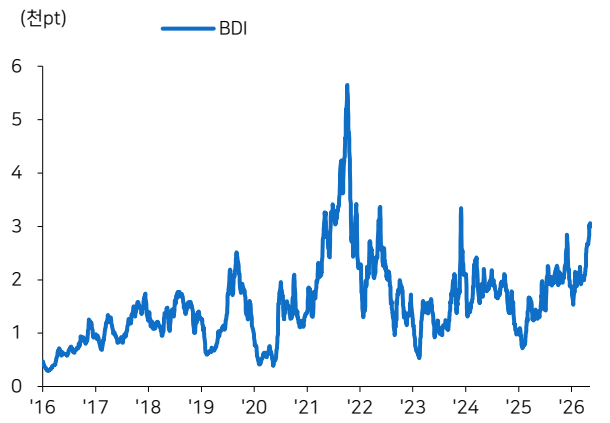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4p (+0.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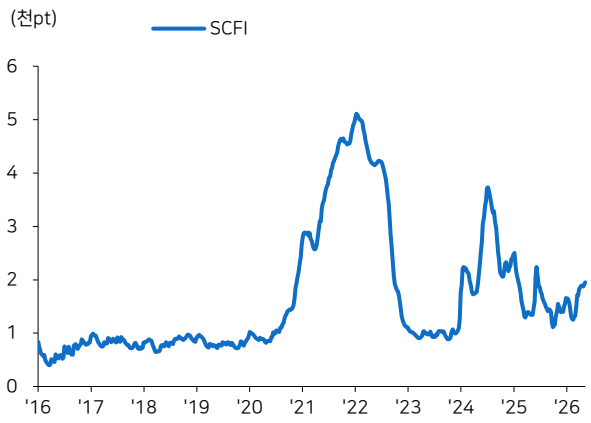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6.0달러 (+20.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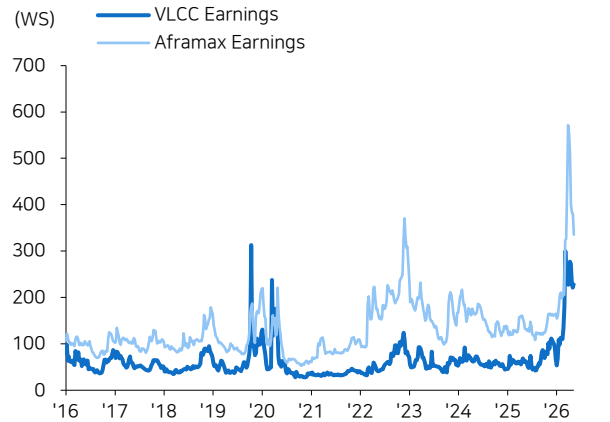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189.0p (+12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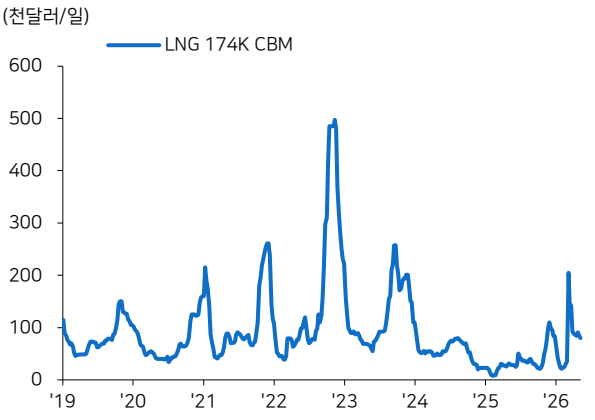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54.2(+42.8 WoW)



VLCC Spot Rate 227.8WS (+7.0p WoW)



LNG Spot 운임 80.0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중공업, KDDX 사업 1 차 입찰에 '불참' (서울경제) https://zrr.kr/d3jCac

HD현대중공업이 14일 마감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1차 입찰에 기술적 검토 및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됨. 회사는 국내 유일의 이지스함 건조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나, 기본설계 당시보다 촉박해진 공기(71개월)와 예산 규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의 불참으로 1차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이달 중 재공고를 낼 예정이며, 재공고 시에도 단일 업체만 응찰할 경우 제안서 평가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32년 선도함 인도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신한은행, 삼성중공업·무보와 조선업 공급망 금융지원 협약 (연합뉴스) https://zrr.kr/ceBbL7

신한은행이 삼성중공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조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삼성중공업은 총 213억 원을 무역보험공사에 공동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과 보증료 전액 지원 등 유동성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짐. 신한은행 측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조선업 공급망 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조선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알려짐.

우리은행, 한화오션과 3,000 억 상생금융 공급...협력사 지원 확대 (뉴시스) https://zrr.kr/5a1Z6u

우리은행이 한화오션과 손잡고 조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위해 우리은행과 한화오션은 각각 178억 원과 35억 원을 공동 출연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 산업 공급망 내 중소 · 중견 기업들에 무역금융 및 운전자금 등 실질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으로 전해짐. 우리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적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국가 전략산업인 조선업과 협력업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짐.

HD 현대, 협력사 자재대금 7,400 억 조기 지급..."중동 리스크 대응" (뉴시스) https://zrr.kr/dOV3XV

HD현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7,400억 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이번 조치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 등 조선 · 해양 부문 계열사들이 약 5,680억 원을 우선 집행하며, HD현대일렉트릭과 HD현대마린솔루션 등도 동참해 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줄 계획이라고 전해짐. HD건설기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조정 주기를 단축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으며, HD현대 측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짐.

Hayfin Capital returns to LNG shipping with Hyundai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Caalhv

영국 런던 소재의 Hayfin Capital Management가 HD한국조선해양에 LNG 운반선 2척을 발주하며 가스선 시장에 재진입했다고 보도됨.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약 7,439억 원(척당 약 2억 5,050만 달러)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Hayfin을 실제 발주처로 지목하고 있다고 전해짐. 해당 선박은 17만 4,000㎥급으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어 2029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짐. 과거 LNG 운송 분야에 참여했다 철수한 바 있는 Hayfin은 이번 발주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장하고 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수주 목표액의 50.7%를 달성했다고 전해짐.

US set to become Europe's largest LNG supplier in 2026 (Upstream) https://zrr.kr/sKtqNk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에 따르면, 2026년 유럽의 LNG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고 2028년에는 80%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도됨.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오히려 미국산 LNG에 대한 과도한 편중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공급망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는 '유럽 에너지 안보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고 전해짐. 유럽은 2030년까지 LNG 수입 용량을 24% 늘릴 계획이나 실제 가스 수요는 감소할 전망으로 보여 설비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여전히 유럽 내 공급 2위를 기록 중인 러시아산 LNG는 2027년 1월부터 장기 계약 물량까지 전면 금지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